

『Topic』

(海)(外)(文)(獻)

頭頸部 惡性 腫瘍의 自家檢査法

서울齒大 口腔外科 김 유 진 抄

어떻게하면 可能한한 癌을 조기에 發見하여 人類의 生命을 연장하고, 手術后에 오는 안모의 추형을 감소시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오래 前부터 우리들의 큰 관심거리였다.

대개의 癌患者들이 自覺症狀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 中·末期에 病院을 찾아오게 되어 대개는 手術할 수 없는 狀態이거나 手術한다해도 生存率이 낮고 심한 안모의 추형을 招來하게 되기 때문에 早期發見·早期治療의 생각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1960年代 초기에 Haagenson 등에 의해 유방암의 患者 自身에 의한 檢査가 發表된 以來 豫防醫學의 觀點에서 그 重要性이 점차 절감되고 있다.

現在의 大部分의 口腔癌 患者들은 不適合한 醫師의 選擇, 그로 인한 誤診 및 부적합한 治療(예를 들면 Penicillin 투여, mycin, gentian blue, vitamin 등)로 수술의 適期를 놓치고 치료가 곤란한 狀態에서 치과의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年間 7,500萬名 정도가 口腔癌으로 死亡하고 있으며, 頭頸部 癌의 新患數는 47,000名 정도이므로, 이들을 올바른 치료로 절망에서 求해줄 막중한 책임이 우리 齒科醫師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이에 口腔癌을 患者 自身이 집에서 거울을 보고 一次로 直接 檢査할 수 있는 方法을 紹介한다.

前準備로서 醫師가 患者에게 病院에서 口腔癌의 好發部位, 正常狀態의 色, 樣狀, 해부학적 形態등을 주시시키고, 病的狀態의 臨床所見을 說明한후, 다음의 自家檢査法을 가르쳐 준다.

- ① 안모의 左右대칭 : 얼굴 全體를 볼 수 있는 큰 거울 앞에서 안모의 左右대칭을 檢査하고, 만약 부종, Nevus, Pimple, Scar 등이 존재할 경우 觸診해보도록 한다.
- ② 입술 : 입술을 아래 위로 당겨서 색깔과 표면상태의 변화를 檢査케 한다.
- ③ 치은 : 입술을 치켜올리고 전체 치은을 檢査케 한다. 이때 미리 정상치은의 狀態에 대해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 ④ 혀점막 : 두 손가락으로 혀점막을 잡고 벌려서 관찰하고 촉진해보도록 한다. 이때 역시 정상 색깔, 咬痕, 白線(linea alba) aphtha 등을 미리 설명해 주어 감별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혀 및 구강저 : 혀를 상하 좌우로 운동하면서 혀의 색깔이나, 형태의 변화, 운동장애등을 관찰케 한다.
- ⑥ 구개 : 구개에 생긴 골육기, rugae 등을 미리 설명해 준다.
- ⑦ 경부 측면 : 목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경부 임파절을 檢査하여 혹이 만져지는지 여부를 관찰케 한다.
- ⑧ 기도 : 손가락을 갑상선에 대고 연하운동시켜서 연골의 상하운동을 檢査케 한다.

以上の 自家檢査時 혹 같은 멍어리나 색깔변화등이 나타나면, 2주정도 지나도 치유가 안 될 때는 지체말고 치과의사를 찾아오도록 알려주며,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정기 檢진을 받도록 권장한다.

사실 이상의 自家檢査法을 患者에게 說明한다는 것은 時間을 要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患者를 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본적인 方法이므로 치과의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 용 문 헌

Teaching self-exam. of the Head & Neck; Richard T-Rlass 等
JADA 1265—1268 Vol. 90, June 1975